

한국 대학생의 연인평가와 연애타도 연구 : 유사성을 중심으로

주현덕 장근영
연세대학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자들이 개발한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MALPS)'를 활용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애인으로서의 자기, 애인, 그리고 바람직한 상대'에 대한 평가와 연애타도를 측정하였다. 의미론적 차별법(SD)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MALPS 는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유능함, 포용성 및 개방성의 6개 요인의 행동사 쌍들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능력 있음-없음'과 '외모 만족-불만족'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였다. 또한 MALPS 외에 관계만족도 척도와 사랑의 유형 척도를 약간 수정하여 217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연애관계에서의 자신, 연애상대, 바람직한 상대에 대한 태도와 그들의 연애관계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평가 요인 또는 태도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람직한 연애상대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원했으나, 외모의 선호에서는 성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바람직한 연애상대로서는 보다 다정하고 유사하며 관계에 충실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양성 모두에서 중시하였고, 여성은 연애상대의 유능함을 남성보다 중시하였다. MALPS 의 점수가 높은 것이 바람직한 연인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ALPS 점수가 애인과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애인과 차이 있는 사람들보다 관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인의 평가 점수가 높아서 자신보다 좋은 태도 또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자신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연애타도 또는 평가'에 있어서도 당사자들 간의 유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태도가 유사한 것만큼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유사성의 지각이 관계만족과 관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정관계에서 진화심리학이 강조하는 '자원의 소유'만큼, 자원을 호의적으로 제공하려는 연인의 우호적인 태도와 평가 요인들이 관계만족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MALPS, 연애타도, 관계만족, 애정유형, 연애타도, 애인평가척도

“모든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동등하게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Buss & Barnes, 1986).” 이성에게 선호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가를 잘 알 수 없기에, 연애란 자연스런 것임에도 그

렇게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신비한 비밀로서 계속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일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하나인(함인희, 2001; 홍대식, 2002; Lykken & Tellegen, 1993) 애정관계에서

주현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 장근영은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주현덕,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전화 : (02) 2123-2435,
E-mail : iamjupiter@empal.com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과 성공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어떻게 호감이 생겨나고 그 호감이 더 깊은 단계로 진전하게 되는가는 심리학자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관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Lykken & Tellegen, 1993; Schmitt & Buss, 2001; Wang & Nguyen, 1995). 이러한 이성 상대 선호의 원인에 대해 D. Buss를 비롯한 진화심리학자들과 일군의 생물학자들 및 인류학자들은 더 나은 유전자를 후대에 남겨줄 수 있는 조건이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라고 주장한다(Barash & Lipton, 2001; Buss, 1994; 2000; Buss & Barnes, 1986; Diamond, 1997; Fisher, 1994; 1999; 2004; Greitemeyer, 2005; Miller, 2000). 성별에 따라 이성에 대해서 보다 중요시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합인화, 2001; 홍대식 1996, 2002; Buss, 1986; 2000; Feingold, 1992; Townsend, 1998; Dion & Dion, 1973). 이성관계의 시작에 대해서는 연애상대간의 유사성이나 상보성에 의해 호감이 형성된다는 설명도 있고(이훈구, 2002; Aronson, 1999; Berg & McQuinn, 1986; Byrne & Smeaton, 1986; Condon & Crano, 1988; Jones, Pelham, Carvallo & Mirenberg, 2003; Surra & Longstreth, 1990), 강화와 보상에 의해 호감 형성과 관계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있다(홍대식, 2002).

하지만 이런 심리학적 설명들은 아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는 데에 어떤 구체적인 권고를 주거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심리학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대인관계, 애착, 매력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들 대신에 젊은이들은 혈액형이나 별자리를 근거로 상대를 평가해 보고, 궁합이나 점을 통해서 연애상대와 자신이 잘 맞는지를 알아보며, 현재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상태이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따져본다. 애정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사랑의 유형(Lee, 1973; 1988)’이나 ‘사랑의 삼각형(Sternberg, 1988)’을 아는 것도 연애 당사자들이 서로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에 있어 이해하기 쉬운 어떤 설명을 해 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A란 사람이 자신에게 아가페적인 면과 에로스적인 면이 많고, 그의 연인인 B는 마니아적이거나 스트로게한 특성이 강하다는 설명이 그들의 관계만족이나 갈등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잘 알려진 사랑에 관한

이론과 연구 결과물도 아직은 일반 사람들에게 낯설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더 나은 이해는 더 좋은 행동과 선택을 이끌고, 이를 통해 좀 더 좋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에도(Fromm, 1956), 연애관계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려 하고 노력하는 대신에, 지레짐작하고 어떤 것들은 꼭 어떠해야 한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고, 과잉일반화를 흔히 저지르며, 잘못된 심리추측과 이분법적 사고로 관계와 상대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김중술, 1994; Beck, 1988). 그 결과가 바람직할 것이 될 수 없음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구자들은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고, 사랑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여러 심리학 연구들의 결과물이 반영된 연애관련 척도를 만들어 제공하고자 함으로써, 심리학에 조예가 있지 않은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실시해보고, 비교를 통해서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연애관계에서 중요한 여러 요인들을 가능한 많이 찾아내고 이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로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다 중시하는 연애태도와 연인을 평가하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런 요인들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와 연애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또 불만이 있을 경우 연인의 어떤 연애태도나 특성에 원인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성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에 고려되는 수많은 요인들 중, 어떤 사람이 선호되는 조건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성으로부터 더 많은 인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성 선택에서 중요한 조건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선택의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의 선택 상황에서는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또 선택되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은 ‘선호되는 조건의 비교적 우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슷한 조건에서의 선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애관계에서의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남녀관계의 발전과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애태도와 연인에 대한 평가를 이해함으로써

연애관계의 만족도와 지속 가능성, 연인들 간의 조화성을 알 수 있으며, 연애타도가 연인 선택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연애 태도, 바람직한 상대에 대한 태도에서 성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슷한 조건’을 설정하는 난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조건에서의 선택 결정을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연애타도에서 분명 선호되는 태도가 있으며, 태도에 있어서 단지 바람직한 면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연애상대간의 태도가 서로 비슷한 것이 관계만족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제로 비슷한 것 자체만큼이나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유사성의 지각이 관계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애 태도의 성차에 관련된 이론들

애정관계에서의 성차에 대한 논의는 성차를 증시하는 진화심리학적 및 정신역동적 관점과 남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ies)의 양측으로 나뉠 수 있다(Pine, 1998). 아주 단순화시켜본다면, 진화심리학에서는 이성상대 고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로서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하고,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가장 중시하며, 이런 선호 기준이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홍대식, 1998; 2002; Barash & Lipton, 2001; Buss & Barnes, 1986; Buss, 1994; 2000; Diamond, 1997; Dion & Dion, 1973; 1975; Feingold, 1992; Fisher, 1994; 1999; 2004; Greitemeyer, 2005; Miller, 2000; Pines, 1999; Townsend, 1998). 반면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에서는 연애관계에서 남녀의 차이보다 유사성이 더 크다고 주장된다(DeLamater & Hyde, 1998; Kenrick et al., 1993; Pines, 1999). 남녀는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지 않으며,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보다 안정적이고, 관계에 충실하며, 성적으로 배타적인 관계를 더 추구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한다(Cochran & Peplau, 1985). 양성은 모두 이성으로부터 이해심 따뜻함 민감성과 유머감을 추구하고, 친밀감과 관련된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중시한다고 한다(Pines, 1998). 사회구성관점에서 보면 진화심리학이나 정신역동이론의 애정관계에서의 성차의 지나친 강조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고, 과도하

게 단순화된 인식의 산물이다(Tavris, 1992). 이 관점에서 성차보다 같은 성별 내에서의 차이에 주목하며, 성차에 대하여 문화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상황의 변수를 통해서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두 관점이 서로 병립될 수 없는 반대되는 관점이라기보다(DeLamater & Hyde, 1998) 각각 연애의 다른 단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애상대를 고르는 것은 단일한 단계가 아니며(예 : 여과이론), 연애상대를 선택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남녀가 진화심리학이 제시하는 선택 기준에 더 비중을 두지만(홍대식, 2002),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선택의 단계와는 다른 요인이 중요해지게 된다(Berg & McQuinn, 1986). 이 단계에서는 연애 태도 등이 더 중요해지며 사회구성이론이 주장하는 대로 연애 태도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진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생각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애상태의 초기선택에서는 진화심리학의 설명을 지지하고, 연애타도에 있어서는 성차보다 성별 유사성에 주목하는 사회구성이론의 관점을 지지한다. MALPS의 사용을 통해서 연애타도의 성차 또는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연애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유사성과 관련된 이론들

이성 상대의 선택의 여과이론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유사성에 의해 파트너를 고르고, 그 다음 가치 유사성, 성격의 상보성에 의해 상대가 선택된다고 한다(홍대식, 2002, p.46). 근접성, 상호매력, 사회적 배경의 유사성, 태도와 가치의 유사성, 상호보완적 성격, 결혼의 준비상태 등이 여과망이 되어 상대를 고르게 된다(Pines, 1999). 관계 발전에 관한 이론은 파트너의 조화성 검증에 의해서 배우자 선택이 일어나며, 성격, 가치, 역할 및 인구학적 특징들에서 파트너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시사한다(홍대식, 2002). 조화성은 상보성(complementarity)과 유사성(similarity)으로 구분되지만, Pines(1999)에 의하면 상보성보다는 유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분명 자기와 비슷한 태도와 특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며(Aronson, 1999; Byrne & Murnen, 1988; Byrne, Clore & Smeaton, 1986; Condon & Crano, 1988; Kurdek, 1993; Surra & Longstreth, 1990), 인구학적 변인들 성격 태도와 가치

신체적 매력의 유사성 등이 중요하게 된다(Aronson, 1999; Condon & Crano, 1988; Dion & Dion, 1987; Feingold, 1992; 1990; 1988; Gangestad, Thornhill, & Yeo, 1994; Jones et al, 2004; Kalick, 1987; Kurdek, 1993; Langlois, 1994; 1990; Mathes & Kahn, 1975; Surra & Longstreth, 1990; Townsend, 1998).

태도와 성격의 유사성이 호감 형성과 관계 만족을 예측할 수 있고(Aronson, 1999; Berg & McQuinn, 1986; Byrne et al., 1986; Byrne, 1963; Condon & Crano, 1988; Jones et al., 2003; Surra & Longstreth, 1990), 애정관계에서 중요하다라는 설명은 더 나은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여성과 더 나은 양육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남성이 선호된다는 진화심리학과 인류학의 주장이 강조하는 자원 소유 자체 만큼(Barash & Lipton, 2001; Buss & Barnes, 1986; Buss, 1994; 2000; Diamond, 1997; Fisher, 1994; 1999; 2004; Greitemeyer, 2005; Miller, 2000, Townsend, 1998), 자원이 제공되는 방식이 더 중요한 상대 선택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태도의 유사성은 친밀감 형성을 돕고 상대방에 대한 예측을 쉽게 해서 관계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Pines, 1999), 비슷한 조건을 가진 후보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 즉 이미 진화심리학적 기준에 의해서 대상들이 이미 여과된 후에는, 태도의 유사성이 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상대가 바람직한 연애상대의 조건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연애를 일단 시작한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연애 태도를 가졌는가에 의해서 연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애관계에서 자신에게 보다 호의적이거나,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상대를 선호하게 되며(Byrne et al., 1986; Byrne, 1963; Condon & Crano, 1988; Surra & Longstreth, 1990), 이는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회교환 모형'의 설명과도 부합된다(Baumeister & Twenge, 2002). 현실에서 애정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Beck, 1988)과 관계에서의 원만하고 적극적인 의사표현(Impett & Peplau, 2003), 생각과 활동의 공유(Aron, Aron, Norman, & McKenna, 2000)는 남녀관계의 지속과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Sedikides, Oliver, & Campbell, 1994; Simpson, 1987). 연구자들은 연애관계에서의 자신의 기본적인 태도, 상대에 대한 태도, 바람직

한 상대에 대한 태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활용(MALPS)을 통해서 연애태도에서의 유사성이 애정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였다.

의미론적 차별법(의미 분석)¹⁾ : 연인평가의 측정방법

연인들의 상대와 자신에 대한 평가양상과 연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sgood, Suci와 Tannenbaum(1957)의 의미론적 차별법(의미분석 : semantic differential)을 이용했다. 이 방법은 설문이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Osgood et al., 1957). 특히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자신과 연애 파트너의 태도 또는 특성 평가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의미 분석에서는 우리의 정의적 체계(affective system)가 자극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평가(evaluation), 자극의 느껴진 강도를 의미하는 세력(potency), 대상에 대한 인지된 에너지 수준을 의미하는 활동(activity)의 세 가지 기본 구성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된다(Gable & Wolf, 1998; Osgood et al., 1957). 이 세 가지의 의미론적 차원은 요인분석의 회전기법을 통해 보다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인들의 체계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의미 분석은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의 쌍에 대해 평가하게 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태도의 방향과 강도를 동시에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Tzeng, 1993).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묻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Osgood et al., 1957), 문장으로 된 문항이 가질 수 있는 편파성을 줄일 수 있는(김아영, 2004; Rust & Golombok, 1999) 장점이 있다. 간단해 보이는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 속에는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다(Osgood et al., 1957).

사랑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론과 척도, 그 응용을 다양한 단계에서 정리한 Tzeng(1993)에 따르면 의미 분석(SD)은 ‘견고한 조작적 용어로 정의하기 힘든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인 사랑’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에 효과

1) Semantic differentials의 명칭에 대해서는 의미론적 차별법, 의미 분석, 의미 차별법, 의미 미분 등 다양한 명칭이 제기되었는데, 심리측정의 전문 교수님의 의견을 따라서 의미론적 차별법과 의미 분석으로 결정하였다.

적인 방법이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임으로(Osgood et al., 1957), 연애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 대한 여러 양상을 예언해 줄 수 있다. Tzeng(1993)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에서든 사람들은 자극 대상을 인지, 평가하고 반응을 예측하며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기 위해, 암묵적인 의미체계에 의존하게 된다. 정보의 수용, 조절, 무시 그리고 그에 따른 의도들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돕는 이 암묵적인 의미의 체계는 애정관계에서 상대(파트너)는 물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며, 의미 분석은 이런 암묵적 의미체계가 반영된 남녀 관계 또는 애정관계에서의 자기의 태도와 의미체계를 신속하게 찾아 줄 수 있다고 한다.

연구목적

첫째로, 이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상대에 대한 MALPS의 요인들의 평가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서 친절함과 배려를 보여주는 연인의 특성과 태도가 공통적으로 선호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Buss & Barnes, 1986). 이를 위해 MALPS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연애상대의 특성으로서 여겨지는가와 하부 요인들의 선호에서 성차가 있는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혹시라도 ‘터프가이(tough guy)’나 마초(macho),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misogynist)나 (Forward & Torres, 1987), 소위 공주병에 걸린 여성이나 쌀쌀맞은 여성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선호되는 태도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연인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MALPS의 높은 점수가 바람직한 연애특성으로 확인되면, 애인의 MALPS를 높게 평가해서 바람직한 특성 또는 태도를 애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애인과의 관계에서 더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각 요인 중에서 관계만족도와 보다 관련이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둘째로, 연인의 특성 또는 태도에서 바람직한 점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그 연인의 특성의 유사성이 관계만족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MALPS 결과의 비교

를 통해 유사성의 역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태도와 성격의 유사성이 애정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으나(Byrne, et al., 1988; Byrne, 1963; Condon & Crano, 1988; Surra & Longstreth, 1990), 연애 상대가 가진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요인인 연인으로서의 특성(MALPS의 높은 점수는 좋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에서도 유사성이 관계만족의 예언변인이 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애인의 MALPS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상대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서로 차이가 있게 평가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관계만족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다.

셋째로 주목하는 것은 연인의 특성 또는 태도가 연인 사이에 실제로 비슷한 것만큼이나(전반적인 유사성), 서로에게 비슷하게 인식되는 것이 관계만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Levinger와 Breedlove(1966. Pines, 199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태도와 의견을 더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을 더 만족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 또한 부부는 실제보다 서로를 훨씬 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유사성의 지각이 연애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MALPS의 제 2요인인 “유사성”은 연애상대를 얼마나 비슷하고, 동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전반적인 MALPS의 요인들에서 연인과 자신의 점수 차가 적어서 서로 비슷한 특성 또는 연애태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큼, ‘유사하다는 판단’을 의미하는 유사성 요인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관계만족을 더 많이 예측할 것으로 보였다.

MALPS는 연애 관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서, 하위요인인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과 개방성은 한 검토자(reviewer)의 지적처럼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연인들이 둘 다 MALPS에서의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애상대가 서로 닮은 것만이 아니라, 단지 두 사람 모두 바람직한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런 바람직한 태도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키가 작은 사람의 경우,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하고, 게으른 사람(부정적인 요인)이 부지런한 사람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런 선택은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보다 나은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상대'를 선호하는 '종족보존의 원칙'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큰 사람 대신에 자신과 비슷한 키의 사람을 선택하고, 게으른 사람이 자신처럼 느린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 자신의 어떤 특성이 상대와의 비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특성이 단점이 되지 않는 연애관계를 지향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좋은 점이 많은 사람과 연관을 맺기를 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국 자신보다 훨씬 잘났거나 못한 사람보다 비슷한 사람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Pines, 1999). 이런 비슷함은 우리에게 우리가 옳다는 느낌을 주고(Aronson, 1999), 상대방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며 그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게 한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은 우리에게 보다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점을 가진다(Pines, 1999). 따라서 유사성 자체는 좋은 특성을 많이 가졌다는 것만큼 이성에게 좋은 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연애 태도에 있어서도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와 비슷한 정도로 다정하고, 비슷하게 충실하고 포용적이며, 비슷한 정도로 유능하며 비슷하게 개방적이고,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고 연구자들은 판단하였다. 또한 이런 '비유전학적인' 선택과 타협은 진화론적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연애관계를 지속하는데에서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고, 보다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하여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진화론의 '개체보존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Lee(1973; 1988)의 사랑의 유형을 검사하여 그 중 어떤 유형이 관계만족과 더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Lee(1973; 1988)의 사랑의 유형을 척도로 만든 것은(Hendrick & Hendrick, 1986) 관계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라서, 연애당사자들이 사랑의 유형을 알게 되더라도, 연인과의 관계의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고 관계만족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에 비해 MALPS는 연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

아내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Y대학교에서 교양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들(N=217)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103명, 여자 113명이었고(평미기제), 평균 연령은 20.1세(18-27세)였다. 전체 인원 중 6개월 이상 애인이 없는 학생은 106명(48.9%)이고, 6개월 이내에 애인과 헤어진 학생이 21.7%, 애인이 있는 학생이 29.5%였다. 전체 인원 중 24.4%가 연애 경험이 없었으며, 1-2명 사귀어온 사람이 46.1%, 3-4명이 21.7%이고, 5명 이상이 7.8%였다.

측정 도구와 절차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 : MALPS

연구자들이 개발한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 : Me(My partner) As a Love Partner Scale'를 자신 연애 상대와 바람직한 대상에 대해서 완성하도록 요구했다. MALPS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 한덕웅(1992)의 한국어 성격특성 용어 786개와 한덕웅, 강혜자(2000)의 한국어 정서 용어 834개, 안신호, 이승혜와 권신호(1993; 1994)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96개의 한국어 정서 단어와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을 위해 사용한 64개 개념들(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1; 정남운, 2000)을 모두 포함한 총 1780개의 형용사 목록(pool)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 목록은 주로 성격에 대한 형용사들의 목록이었으므로 연애에 관련된 형용사들을 추가로 보강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Tzeng (1993)의 'Measurement of Love and Intimate Relations : Theories, Scales, and Applications for Lov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olution'에 나온 각종 애정 척도들과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된 요인 및 Beck(1998)의 애정 표현 측정에 사용된 형용사들을 추가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에서(예 : Dion & Dion, 1973; 1987; Hendrick, Hendrick, Foote, & Slapion- Foote, 1984; Lykken & Tellegen, 1993) 발견한 개념이나 강조된 요인들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애정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배우자 선택의 중요 요인으로 확인된 외모, 성(sex),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련된 단어들이

추가 되었다. 이런 형용사 목록을 우선 심리학 전공 연구자들에게 보여주고 유사한 문항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 범주들에서 대표형용사를 다시 선별하고, 선별된 문항을 일반대학생들 대상으로한 3차례의 예비검사(각 예비연구에 참가한 피험자 수는 67명, 306명, 376명이었음)와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으로 묶고, 각 요인을 하위적으로 간주한 문항별 신뢰도 평가를 통해서 유의한 문항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별했다. 그 결과 MALPS가 만들어졌다. MALPS는 기본적으로 6개의 하부요인(각 요인별 4쌍)으로 구성된 24개의 반대말 쌍과,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1 항목”으로 추가된 ‘성적 만족-불만족’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하부요인은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그리고 개방성이다. “+1” 항목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 형용사 쌍으

로 교체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력 있다없다’와 ‘외모 만족-불만족의 쌍’ 등이 추가되어 실시되었다. 다정함(tenderness) 요인에는 ‘자상하다-무뚝뚝하다, 다정하다-냉정하다, 로맨틱하다-뻘뻘하다, 성격이 원만하다-성격이 모나다’의 쌍들이 있으며, 유사성(similarity) 요인은 ‘상대와 비슷하다-상대와 안 비슷하다, 수준이 맞다-수준이 안 맞다, 동질적이다-이질적이다, 만족스럽다-불만족스럽다’의 쌍으로 구성되었다. 집중성(commitment) 요인에는 ‘진지하다-진지하지 않다, 헌신적이다-헌신적이지 않다, 열중하다-편 데 신경 쓰다, 성실하다-불성실하다’의 쌍들이, 유능함(competence) 요인에는 ‘능력 있다-능력 없다, 똑똑하다-멍하다,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합리적이다-불합리하다’의 쌍들, 허용성(permissiveness) 요인에는 ‘너그럽다-공하다, 이해심 많다-이해심 적다, 포용적이다-비판

표 1.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 (MALPS)

| 연인으로서 나(내 애인)는? | | |
|------------------------|-------------------|-------------------------|
| -뻘뻘하다 | 1-2-3-4-5-6-7-8-9 | -로맨틱하다 |
| -상대(나)와 다르다 | 1-2-3-4-5-6-7-8-9 | -상대(나)와 비슷하다 |
| -편 데 신경 쓴다 | 1-2-3-4-5-6-7-8-9 | -열중하다 |
| -공하다 | 1-2-3-4-5-6-7-8-9 | -너그럽다 |
| -무능하다 | 1-2-3-4-5-6-7-8-9 | -능력 있다 |
| -내성적이다 | 1-2-3-4-5-6-7-8-9 | -외향적이다 |
| -다정하다 ¹ | 1-2-3-4-5-6-7-8-9 | -냉정하다 [*] |
| -수준이 맞다 ¹ | 1-2-3-4-5-6-7-8-9 | -수준이 맞지 않다 [*] |
| -진지하다 ¹ | 1-2-3-4-5-6-7-8-9 | -진지하지 않다 [*] |
| -포용적이다 ¹ | 1-2-3-4-5-6-7-8-9 | -비판적이다 [*] |
| -독립적이다 ¹ | 1-2-3-4-5-6-7-8-9 | -의존적이다 [*] |
| -진보적이다 ¹ | 1-2-3-4-5-6-7-8-9 | -보수적이다 [*] |
| -성격이 모나다 | 1-2-3-4-5-6-7-8-9 | -성격이 원만하다 |
| -이질감 | 1-2-3-4-5-6-7-8-9 | -동질감 |
| -헌신적이지 않다 | 1-2-3-4-5-6-7-8-9 | -헌신적이다 |
| -이해심이 부족하다 | 1-2-3-4-5-6-7-8-9 | -이해심 많다 |
| -멍하다 | 1-2-3-4-5-6-7-8-9 | -똑똑하다 |
| -성적으로 보수적이다 | 1-2-3-4-5-6-7-8-9 | -성적으로 개방적이다 |
| -자상하다 ¹ | 1-2-3-4-5-6-7-8-9 | -무뚝뚝하다 [*] |
| -만족하다 ¹ | 1-2-3-4-5-6-7-8-9 | -불만족하다 [*] |
| -성실하다 ¹ | 1-2-3-4-5-6-7-8-9 | -불성실하다 [*] |
| -자유를 존중하다 ¹ | 1-2-3-4-5-6-7-8-9 | -소유지배적이다 [*] |
| -합리적이다 ¹ | 1-2-3-4-5-6-7-8-9 | -불합리하다 [*] |
| -적극적이다 ¹ | 1-2-3-4-5-6-7-8-9 | -소극적이다 [*] |
| +성적으로 불만족 한다 | 1-2-3-4-5-6-7-8-9 | +성적으로 만족 한다 |
|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 1-2-3-4-5-6-7-8-9 | +외모가 마음에 든다 |
| +경제적 능력이 없다 | 1-2-3-4-5-6-7-8-9 | +경제적 능력이 있다 |
| +잘 표현하지 않는다 | 1-2-3-4-5-6-7-8-9 | +잘 표현한다 |

주 : *는 역채점 문항, +로 표시된 항목들은 실시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적이다, 자유준중-소유지배적'의 쌍들이, 그리고 개방성 (openness) 요인에는 '성적으로 개방적-성적으로 보수적, 적극적-소극적, 진보적-보수적, 외향적이다-내성적이다'의 쌍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요인의 신뢰도의 알파 값 (Cronbach's Alpha)은 3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 요인 다정합은 .80($N=375$), 2요인 유사성은 .77($N=374$), 3요인 관계성실성은 .71($N=375$), 4요인인 허용성은 .69($N=374$), 5요인 유능함과 6요인 개방성은 둘 다 .64($N=374$)였으며, 전체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요인 24개 쌍일 경우에는 .85($N=371$)이고, 성적 만족을 포함시킨 25개 쌍의 경우에는 .83($N=371$)이었다. 3주 간격으로 124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67-.81이 얻어져서 정의적 척도로서의 기준 .70에(Gable & Wolf, 1993)에 부합한다. 24개 단어 쌍의 설명변량은 61%이며, 성적 만족도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59%의 설명 변량을 갖는다(표 1).

연애유형 척도와 연애만족도 척도

그리고 Lee(1973; 1988)의 사랑의 유형을 Hendrick과 Hendrick(1986)이 사랑의 유형 척도(Love Styles Scale)로 만든 것을 그대로 번역하되 번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문항을 각 유형별로 하나씩 줄인 총 36문항을 함께 측정하고, Roach, Frazer와 Bowden(1981; Tzeng, 1992에서 재인용)이 만든 결혼 만족 척도(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에서 연애 관계에 보다 관련 있는 20개 문항을 골라서 수정한 '연애관계에 대한 만족도(100점 만점)'를 평가하게 하였다(예: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 나는 항상 내 애인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애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애인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 등). 개인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및 애인 관계와 정치·문화적 성향, 가족의 경제적 능력, 이전의 연애 관계 수, 외모 평가, 외모 만족도, 애정 관계에서 성의 중요성, 관계의 주도권,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 등에 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바람직한 상대의 특성 판단의 성차

남녀 모두 친절함과 배려를 나타내는 연인의 특성과 태

도가 공통적으로 선호한다는 첫째 가설을 확인을 위해, 바람직한 대상에 대해서 9점 척도로 된 MALPS를 완성하게 하고, 각 요인들의 평균과 "+1요인"으로서의 경제력과 외모에 대한 평가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M=6.79$)이 남성($M=5.98$)보다 바람직한 상대의 유능함을 중시하는 뚜렷한 성차가 확인되었다, $t(213)=7.18$, $p<.0001$, 또한 여성이($M=7.33$) 남성보다($M=7.05$) 바람직한 상대의 허용성을 중시하였다, $t(214)=2.49$, $p<.01$. 하지만 다른 요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양성 모두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개방성 요인이 높은 것을 바람직한 상대의 특성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평가에선 여성($M=7.91$)이 남성($M=7.08$)보다 더 중시한 반면, $t(214)=4.87$, $p<.0001$, 바람직한 상대의 외모에 대해서는 남성과($M=7.58$) 여성의($M=7.22$)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t(214)=1.95$, $p=ns$.

MALPS의 각 요인별 점수의 평균치를 보면 경제적 능력($M=7.52$)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외모 만족(7.39)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정함($M=7.40$), 집중성($M=7.27$), 허용성($M=7.20$)의 점수가 유사성($M=6.41$), 유능함($M=6.40$), 개방성($M=5.64$)보다 높아서, 친절함과 배려를 의미하는 요인들이(Buss & Barnes, 1986) 더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방성 요인은 중간 수준이 선호되었다.

결론적으로, 연인의 평가에서 여성이 남성의 유능함과 너그름(허용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요인들에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서, 바람직한 연애 태도 또는 연인의 특성으로 다정함, 집중성, 허용성이 양성 모두에게서 중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경제력을 중시한다는 진화심리학의 주장은 확인되었지만,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현상은 이번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외모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바람직한 상대에 대해 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애상대의 이상적인 특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기대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이경성과 한덕웅(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성별(2)×연애상태(3)의 이원분산분석

현재 연애중인 사람들, 헤어진 사람들 및 애인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하여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결과, 어

면 MALPS의 요인에서도 성별과 연애타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은 유능함과, $F(1, 215)=50.48, p<.0001$, 경제력이었다, $F(1, 216)=25.81, p<.0001$. 연애타도에 따른 집단 차는 유사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F(2, 213)=21.90, p<.0001$. 이는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연애타도로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원하는 반면,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과 덜 비슷한 사람을 이상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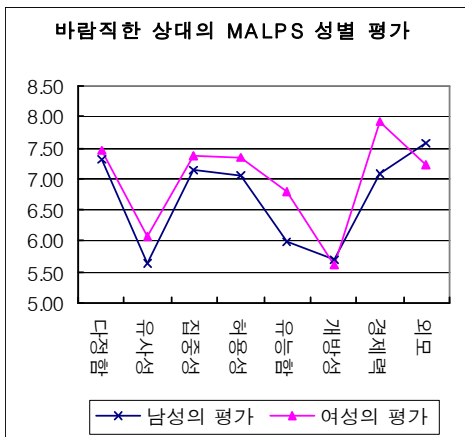


그림 1. 바람직한 상대의 성별 평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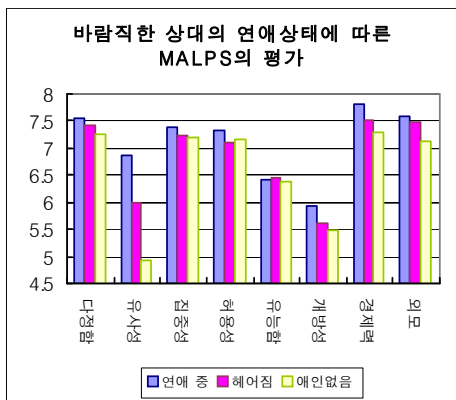


그림 2. 바람직한 상대의 연애타도별 평가 차이

MALPS와 사랑유형척도와 관계만족도간의 상관 전체 25개 MALPS 항목의(6요인 x 4항목 + 정적만족) 총 점수는 관계만족도와 상관이 높아서 관계만족도를 평가

표 2. 관계만족도와 MALPS 애인 평가의 상관(r)

| | 현재 애인 | 과거 애인 | 남성 ^a | 여성 ^b |
|-------|---------|--------|-----------------|-----------------|
| 다정함 | .538** | .404** | .592** | .491** |
| 유사성 | .710** | .489** | .796** | .495** |
| 집중성 | .504** | .433** | .566** | .425** |
| 유능함 | .284* | .283* | .512** | .092 |
| 허용성 | .515** | .417** | .560** | .419** |
| 개방성 | .203 | .001 | .172 | .179 |
| MALPS | .735** | .534** | .804** | .553** |
| 에로스 | .326* | .510** | .589** | .363** |
| 루두스 | -.352** | .147 | -.025 | -.126 |
| 스트로게 | .293* | .340** | .353** | .214 |
| 프래그마 | .039 | .068 | .023 | .072 |
| 매니아 | -.106 | .027 | -.090 | -.040 |
| 아가페 | .230 | .261 | .399** | .251* |

주. a - 남성의 여성 애인에 대한 평가 b - 여성의 남자 애인에 대한 평가.

* $p<.05$, ** $p<.01$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표 2). 하위 요인 중 친절과 배려를 의미하는(Buss & Barnes, 1986) 다정함, 집중성, 허용성이 유능성이나 개방성보다 관계만족도와 상관이 높았다. 결과에서 놀라운 것은 여성의 경우 바람직한 상대에 대해 유능함을 남성보다 더 많이 중시했던 것에 비해, 상대의 유능함이 여성의 관계만족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r=.09, p=ns$), 오히려 남성의 경우에 연애타도 여성의 유능함이 만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r=.512, p<.001$).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사랑의 유형 척도(Love Styles Scale)가 비록 관계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6가지 유형의 점수 사랑의 유형에서는 에로스만이 일관되게 관계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루두스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거나 관련이 없었으며, 스트로게는 대상에 따라서 정적인 상관을 보여줬고, 아가페는 여성보다 남성의 관계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높았다. 연애타도를 많이 사랑하고(에로스) 또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스트로게),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는(낮은 루두스)사람들이 연애에서 더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애인(P)과 자신(M)의 비교

자신보다 더 나은 연애타도 또는 특성의 애인을 가진 사람이 관계에 보다 만족하는가, 아니면 자신과 연애타도

가 비슷한 수준의 연인을 가진 사람이 더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애인에 대한 평가(P)와 자신에 대한 평가(M)를 비교해 보았다. 애인과 자신의 평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집단(한 쪽이 다른 쪽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매긴 경우)과 적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① 애인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의 절대값(|P-M|)의 차이가 많이 나는 집단과 적게 나는 집단으로 구분, ② 애인의 평가에서 자신의 평가를 뺀 값(P-M)의 분포(-11.17에서 8.33까지)를 4분위로 나누어서 차이가 적은 25%의 집단(M=-4.18)과 많은 나는 상위 25%의 집단을(M= 5.05)을 합한 양끝의 집단과, 그 중간 값에 해당하는 50% 집단(M=1.25)으로 구분, 그리고 ③ 애인에 비해 자신을 높게 평가한 집단(P<M)과 애인을 자신보다 높게 평가한 집단으로(P>M) 구분하여 각각의 관계만족도를 t 검증하였다.

MALPS의 점수가 높은 것이 바람직한 상태로 선호되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연애상대(P)가 자신(M)보다 MALPS가 높은 경우(P>M), 애인이 자신보다 더 바람직한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그 반대인 연인보다 자신의 점수가 높은 경우보다(P<M) 관계만족도가 높아야 한다(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을 선호하는 원리대로라면). 반면에 상대의 장점이 많은 것에 못지않게, 상대와 자신의 특성 또는 연애태도에서의 유사성이 중요하다면 연애상대(P)와 자신(M)의 평가가 서로 비슷한 사람이 차이가 많은 사람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야 한다(키 작은 사람이 비슷한 키의 상대를 선호하는 원리대로라면). t 검증 결과, 애인과 자신의 차이가 적은 집단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차이의 절대값(|P-M|)이 작은 집단이 차이의 절대값이 큰 집단보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t(63)=3.22, p<.002$. 그리고 절대값 차이의 분포를 4분위로 나누어 양끝 집단(P-M 값 하위 25%와 상위 25%)과 중간 집단(50%)을 비교한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였다, $t(61)=3.08, p<.003$.

이에 비해 ‘애인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한 집단(P<M)’과 ‘자신보다 애인을 높게 평가한 집단(P>M)’ 각각의 관계만족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 각각의 ‘애인과 자신의 차이의 절대값 평균’을

표 3. MALPS의 애인(P)과 자신(M)의 차이와 관계만족도

| | | 관계만족도 | |
|----------------------|----------------------------|-------|-------|
| | | M | SD |
| P-M | 적음(N=30) | 76.00 | 7.88 |
| | 많음(N=33) | 68.67 | 10.00 |
| $t(61)=3.22, p<.002$ | | | |
| P-M | 2, 3분위 ^a (N=31) | 75.74 | 7.88 |
| | 1, 4분위 ^b (N=32) | 68.69 | 10.13 |
| $t(61)=3.08, p<.003$ | | | |
| P, M | P<M ^c (N=31) | 72.16 | 10.53 |
| | P>M ^d (N=32) | 72.15 | 9.00 |
| $t(61)=.002, p<.998$ | | | |
| 관계만족도 상하집단의 P-M 비교 | | | |
| 관계만족도 | P-M | | |
| 높음(M=80.00, SD=4.81) | 4.93 | 2.25 | |
| 낮음(M=64.51, SD=10.0) | 6.18 | 2.15 | |
| $t(61)= 2.26, p<.03$ | | | |

주) a는 P-M값의 하위25%(P<M)와 상위 25% (P>M), b는 차이가 비슷한 중간의 50%를 의미. c는 상대가 자신보다 MALPS 점수가 낮은 경우, d는 상대가 자신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

표 4. 관계만족도에 대한 애인과 자신의 연애태도 차이 절대값 평균(|P-M|)의 선형회귀분석

| 예언변인 | β | R ² | adjusted R ² | t | F |
|------|---------|----------------|-------------------------|----------|----------|
| P-M | -.398 | .158 | .144 | 27.11*** | 11.45*** |

*** $p<.001$

t 검증하였다. 관계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P-M| 값이 유의미하게 낮아서(M=4.83 vs. 6.18), 관계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애인과 자신의 태도와 특성을 더 비슷하게 평가하였다. 관계만족도에 대한 ‘|P-M|’의 선형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면 애인과 자신의 태도에 대한 평가(|P-M|)는 관계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며($r=-.398, p<.001$), 전체 모형의 1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특성 또는 연애태도에 있어서도 상대가 자신보다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연인끼리 서로 비슷한 특성이나 연애타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둘째 가설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사성에 대한 평가와 관계만족도

현재 애인을 사귀는 사람들의 현재 애인에 대한 평가보다, 애인과 헤어진 사람들은 이전의 애인에 대해서 더 낮게 평가하며, 자신과 옛 애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관계만족에서 연인의 평가와 태도에서의 유사성과 유사성 지각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다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관계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해서 성별, 나이, 정치 문화적 성향, 자신의 경제적 능력, 연애 경험수,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 자신의 외모만족도, 혈액형 등의 개인적 변인들과, 애인과 자신에 대한 MALPS 요인들(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개방성), 애인의 외모에 대한 만족과 경제적 능력, 자신과 애인의 외모평가 차이, 경제력의 차이, 애인과 자신의 MAPLS 각 요인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예측변수로 해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ALPS 하위요인인 애인에 대한 유사성 지각이 예측변수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확인되었다(표 6). 현재 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애인에 대한 유사성의 판단 외에, 애인의 집중성, 허용성과 자신의 다정함 요인이 유의미한 변인이 되었지만, $R^2 = .644, F(4, 58) = 27.22, p < .0001$, 과거의 애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유사성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R^2 = .213, F(1, 66) = 18.90, p < .0001$. 이를 통해서, 관계만족도에 있어서 연애 당사자들이 상대에 대해 느끼는 유사성 지각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관계만족도에서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애인에 대한 연애 집단의 평가 차이(평균)

| 요 인 | 현재 애인 | | 과거 애인 | | t |
|-------|-------|------|-------|------|---------|
| | M | SD | M | SD | |
| 다 정 함 | 6.92 | 1.22 | 5.89 | 1.48 | 4.39*** |
| 유 사 성 | 6.44 | 1.29 | 5.24 | 1.50 | 4.98*** |
| 집 중 성 | 6.66 | 1.40 | 6.01 | 1.56 | 2.52* |
| 허 용 성 | 6.31 | 1.52 | 5.60 | 1.81 | 2.43* |
| 유 능 함 | 6.23 | 1.07 | 5.84 | 1.54 | 1.68 |
| 개 방 성 | 5.90 | 1.23 | 5.30 | 1.39 | 2.66** |
| 성적만족 | 6.53 | 1.60 | 5.32 | 1.61 | 4.36*** |
| 외모만족 | 7.00 | 1.59 | 6.58 | 1.68 | 1.50 |
| 경 제 력 | 4.80 | 2.05 | 4.77 | 2.20 | .06 |
| | N=64 | | N=71 | | |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어떤 연인의 특성 또는 연애타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선호되는가를 알아보았으며, 연인들의 태도의 유사성이 관계의 만족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erg와 McQuinn(1986)의 설명에 따르면 연애관계 초기에는 외적 특징(신체적 매력)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나중에는 태도의 유사성, 가치 합의 등이 중요해지고, 이후에는 서로 맞춰가고 보완해 주는 행동과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연인의 연애타도 또는 평가적 특성에서의 유사성이 관계만족을 결정하

표 6.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애타도요인(MALPS)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대 상 | 예언변인 | β | R^2 | adjusted R^2 | R^2 change | t | F |
|-------|--------|---------|-------|----------------|--------------|---------|----------|
| 현재 애인 | 유사성 애인 | .428 | .520 | .512 | .520 | 4.61*** | 27.22*** |
| | 집중성 애인 | .238 | .571 | .559 | .055 | 2.78** | |
| | 허용성 애인 | .277 | .623 | .603 | .049 | 2.67** | |
| | 다정함 자신 | .220 | .668 | .644 | .045 | 2.71** | |
| 과거 애인 | 유사성 애인 | .475 | .225 | .213 | .225 | 4.35*** | 18.90*** |

** $p < .01$, *** $p < .001$

는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애정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보상을 추구하고, 심리적 상실감을 회피하려는 것은 양성 모두에게 공통적이며(Becker, et al., 2004), 연애상대가 좋은 연애타도 또는 특성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슷한 수준인 것이 연애관계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연애타도 또는 연인특성 평가척도로서 MALPS는 연애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유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MALPS의 활용은 젊은 연인들의 자신의 연애 태도는 물론 상대의 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불만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해서,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연애 상대들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아닌 자신의 평가(P)와 자신이 평가한 애인(P)의 비교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설문에 참가하지 않은 애인들도 과연 피험자들과 같은 관계만족도 수준을 보여주는가를 알 수 없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애 커플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요망된다. MALPS는 연애상대자 간의 태도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연애상대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고, 바람직한 상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계의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이번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이 분포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많은 수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관계에 충실하고 보다 우호적인 상대가 선호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을 ‘애인과 비슷하다’를 평가할 때와, ‘애인이 나와 비슷하다’에 대해 평가할 때, 약간 다른 평가를 내렸는데, 왜 ‘나는 애인과 비슷하다’와 ‘내 애인은 나와 비슷하다’에 대해서 같지 않은 평가를 하였는가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 지속을 결정하는 데에서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며, 어째서 그러한가에 대한 원인 탐구도 있어야 한다 또한 성차가 두드러진 요인들과 그 원인 및 양상에 대한 추가 연구도 요망된다.

MALPS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요인 추가되고 수정되

어야 할 척도이다.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판단을 하는 집단(예: 부부, 연인, 결혼상대 등에 따라서 단어쌍이 다르게 구성된 척도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척도를 더욱 엄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연구자들은 ‘결혼 상대자로서의 나’에 대한 척도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만족도 척도도 MALPS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개발하고자 한다 MALPS가 부부 상담이나 이성 관계, 결혼 상담 등의 영역에서 내담자의 애정관계와 연인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파악하는 예비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아영 (2004). 심리검사 개발 절차: 정의적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제1차 방법론 Workshop 자료집
- 김중술 (1994). 新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07-123.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4).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 정서단어의 유사성구조와 정서체험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50-175.
- 이경성, 한덕웅(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훈구 (2002). 심리학자가 들려다 본 인간시장. 법문사.
-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관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37-51.
- 한덕웅 (1992). 성격특성 용어의 사용 빈도, 호오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한국심리학회지, 11(1), 147-171.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 함인희 (2001).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 문화, 13(2), 3-28.
- 홍대식 (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81-110.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대식 (2002). 연애와 결혼의 심리학. 청암미디어.
- Aron, A., Aron, E. N., Norman, C., & McKenna, C. (2000). Couples' shared participation in novel and arousing activities and experience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73-284.
- Aronson, E. (1999). *The Social Animal* (9th edit.). Worth Publishers/W. H. Freeman and Company.
- Barash, D. P., & Lipton, J. E. (2001). *The Myth of Monogamy*. W. H. Freeman and Company Inc.
- Baumeister, R. F., & Twenge, J. M. (2002). Cultural suppression of female sexualit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 166-203.
- Beck, A. T. (1988). *Love is Never Enough*. New York : Harper Perennial.
- Becker, D. V., Sagarin, B. J., Guadagno, R. E. Millevoi, A., & Nicastle, L. D. (2004). When the sexes need not differ : Emotional responses to the sexual and emotional aspects of infidelity. *Personal Relationships*, 11, 529-538.
- Berg, J. H., & McQuinn, R. D. (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42-952.
- Buss, D. M. (1994). *The Evolution of Desire*. New York : Basic Books.
- Buss, D. M. (2000). *The Dangerous Passion*. 오셀로를 닮은 남자, 헤라를 닮은 여자(이상원 역, 2003). 청림.
- Buss, D. M., & Barnes, M. (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Byrne, D., Clore, G. L., & Smeaton, G. (1986). The attraction hypothesis : Do similar attitude affect anyt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67-1170.
- Byrne, D., & Murnen, S. K. (1988). Maintaining loving relationships. In Sternberg, R. J. & Barnes, M. L.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293-310).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 Campbell, W. K., Sedikides, C., & Bosson, J. (1994). Romantic involvement, self-discrepa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ersonal Relationships*, 1, 399-404.
- Condon, J. W., & Crano, W. D. (1988). Inferred evalu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attitude similarity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89-797.
- De Angelis, B. (1992). *Are You The One For Me?* New York : Dell Publishing.
- Diamond, J. (1997) *Why is Sex Fun?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Orion Publishing Group Inc.
- Dion, K. L., & Dion, K. K. (1973). Correlates of romantic lo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51-56.
-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 in mate selecting preferences :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 125-139.
- Feingold, A. (1990). Gender difference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isher, H. (2004). *Why We Love*. New York : Henry Holt and Company.
- Fisher, H. E. (1999). *The First Sex*. 제1의 성(정명진 역, 2003). 생각의 나무.
- Fisher, H. E. (1994). *Anatomy of Love*.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 Forward, S., & Torres, J. (1987). *Men Who Hate Woman & The Woman Who Love Them*. New York : Bantam Books.
- Fromm, E. (1956). *The Art of Loving*. New York : Harper & Row.
- Gable, R. K., & Wolf, M. B. (199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2nd Ed.). Bost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Gilbert, D. T., Jones, E. E., & Pelham, B. W. (1987). Influence and inference : What the active perceiver overloo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ogy, 52, 861-870.
- Greitemeyer, T. (2005). Receptivity to sexual offer as a function of sex, socioeconomic statu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ntimacy of the offer. *Personal Relationships*, 12, 373-38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ndrick, C., Hendrick, S., Foote, F. H., & Slapion-Foote, M. J. (1984). Do men and women love differentl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177-195.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297-307.
- Jones, T. J., Pelham, B. W., Carvallo, M., & Mirenberg, M. C. (2004).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Js : Implicit egotism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665-683.
- Kalick, S. M. (1987). Physical attractiveness as a status cu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469-489.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Kurdek, L. A. (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 A 5 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21-242.
- Langlois, J. H., Roggman, L. A., & Musselman, L. (1994). What is average and what is not average about attractive faces? *Psychological Science*, 5, 214-220.
- Lee, J. A. (1988). Love-styles. In Sternberg, R. J. & Barnes, M. L.(Eds.), *The Psychology of Love*(pp. 38-67).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Lykken, D. T., & Tellegan, A. (1993). Is human mating adventitious or the result of lawful choice? A twin study of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56-68.
- Mathes, E. W., & Kahn, A. (1975). Physical attractiveness, happiness, neuroticism,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Psychology*, 90, 27-30.
- Miller, G. (2000). *Mating Mind : How sexual choice shared the evolution of human nature?* Brockman Inc.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ines, A. M. (1998). A prospective study of person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5, 147-157.
- Pines, A. M. (1999). *Falling in love*. New York : Routledge.
- Pronin, E., Kruger, J., Savitsky, K., & Ross, L. (2001).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 The illusion of asymmetric ins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639-656.
- Robin N. (1996). *Women Who Love Too Much*.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이미영 역, 1996). 한미음사.
- Rust, J., & Golombok, S. (1999). *Modern Psychometrics : The science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nd Ed.). 현대심리측정학(김아영, 조영미 공역, 2005). 박학사.
- Schmitt, D. P., & Buss, D. M. (2001). Human mate poaching : Tactics and temptations for infiltrating existing mate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94-917.
- Sedikides, C., Oliver, M. B., & Campbell, W. K. (1994).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of romantic relationships for women and men : Implications for exchange theory. *Personal Relationships*, 1, 5-21.
- Simpson, J. A. (1987). The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 factors involved in relationship st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83-692.

- Sternberg, R. J. (1987). Liking versus loving :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ori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331-345.
- Sternberg, R. J. (1998). *Love is a St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 Barnes, M. L. (1988).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Surra, C. A., & Longstreth, M. (1990). Similarity of outcomes,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01-516.
- Townsend, J. (1998). *What Women Want - What Men Wa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Tzeng, O. C. S. (1993). *Measurement of Love and Intimate Relations : Theories, Scales, and Applications for Lov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olution*. CT : Praeger Publishers.
- Waller, N. G., & Shaver, P. R. (1994). The importance of nongenetic influences on romantic love styles : A twin-family study. *Psychological Science*, 5, 268-274.
- Wang, A. Y., & Nguyen, H. T. (1995). Passionate love and anxiety : A cross generational stud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 459-470.

K C I

Korean College Students' Evaluation of Self, Partner, and Preferred Types in Love Relationships Using MALPS

Hyun-Duk Joo

Yonsei University

Guen-Young Jang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validate "MALPS : Me(My partner) As a Love Partner Scale", the inventory was administered to 217 college students. The reformed Love Style Scale(Hendrick & Hendrick, 1986) and the Satisfaction in love relationship 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 same subjects. MALPS consists of 6 factors(tenderness, similarity, commitment, competence, permissiveness, and openness), each of which has 4 subscales. Aimed to find out Korean college students' evaluation and attitudes in love relationships, MALPS was administered about self, love partner, and preferred type. The administration of the MALPS showed Korean college students preferred romantic partners to the opposites. And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was resulted in preference of their lovers' attitude and characters, except for the competence factor. The female students wanted higher economical status of their partners than the male students did,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reference of their partners' appearance. The students preferred partners who are more tender, familiar, loyal, and permissive. A person's high scores of MALPS meant that person had a better character, and the students whose own MALPS was similar to their partners' were more satisfied in their love relationships than those whose MALPS was not similar. Even similarity in evaluations between lovers is very important for their relationship satisfaction. Not only similarity in their evaluation of the partner, but also their thought that lovers have similar evaluations each other is the key to their relationship satisfaction. MALPS was proved to be a reliable tool for measuring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lovers, which means knowing the results of MALPS tells about the relationships and helps to understand lovers. The correlations among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4 factors(tenderness, similarity, commitment, permissiveness) were much stronger than the other factors(competence and openness).

Key word : MALPS, Love attitude scale, Satisfaction in love relationship, Love type, Lover evaluation

원고접수 : 2005년 12월 10일

심사통과 : 2006년 2월 5일